

교실의 사회학

김 남 석*

차 례

1. 교실로 들어가며
2.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 보통 사람들
3. 폭력보다 더 무서운 힘
4. 대립 구도의 시작과 활용
5. 교사와 학생의 틀
6. 새로운 소설들에 나타난 학교의 모습
7. 교실 속 교실을 나와 사회로

1. 교실로 들어가며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된다. 우리에게 사범대학을 갓 졸업한 국어 선생님이 있었다. 소설에서 눈부시게 묘사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분은 아니었다. 물론 평생 기억이 남도록 정의로운 분도 아니었다. 어쩌면 그 분은 평범했고 그래서 유난히 친근했는지도 모른다. 그 분은 국어를 조금 독특하게 가르쳤다. 설명은 친절했고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수업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채워지곤 했다. 유난히 재미있던 국어가 조금 재미있어진 것은 그 분 덕이었다.

* 고려대학교 · 한국종합예술학교 · 한경대학교 강사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이 되기 직전의 어느 날, 그 분은 수업을 뺀 채치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무렵은 겨울 방학이 끝나고 봄방학이 시작되기 전의 어수선한 시절이라서 모두 환영하는 눈치였다. 시골 마을에 급장이 있었다. 그는 공부와 싸움과 통솔력과 예의 범절에서 으뜸이었고, 그의 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반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서울에서 한 학생이 오면서 말썽이 일어났다. 전학 온 학생은 급장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훌륭한 인물에 대한 험담이나 질투 정도로 여겨졌다. 그의 싸움은 오래 갔지만 결국은 지쳐 항복하고 말았다.

그 때 들은 이야기의 골자는 이러했다. 급장의 이름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난다. 엄석대라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1학년 때 한 정경이 떠올랐다. 우리에게도 엄석대와 비슷한 반장이 있었다. 나는 전학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에 그 반장의 명성을 잘 몰랐다. 그는 공부도 잘 했고 통솔력도 있었다. 우리는 당시 그 단어를 인기라고 했지만 뭐라 부르던 그것은 엄석대의 통솔력에 해당했다. 무엇보다 그는 힘이 썩고 국민학교 때 이미 중학생과 싸워 이긴 전과를 가진 듯 했다.

그는 중학교 1학년의 우리 반을 다스렸다. 그 다스림에 불복했던 나는 그에게서 내려진 벌에 항의하다가 그의 주먹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체험해야 했다. 그 뒤로 나는 그와 다툼 일을 피해갔던 것 같다. 그리고 2학년이 되었다. 국어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현실 대응력이 없던 나에게 1학년 어느 시절의 나를 연상시켰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한방태보다 저항을 오래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는 내가 빠진 자리에서 이름만 걸고 행해진 투표에서, 나를 이기고 다시 반장이 되었다.

당시 왜 그 선생님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들려주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소설은 나의 어떤 기억을 건드렸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교재나 참고서가 아닌 책을 사달라고 했다. 간신히 기억한 책 제목은 별로 유용하지 않았다. 이미 서점에는 그 책이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었다. 보물처럼 끼고 돌아와 선생님이 읽어준 대로 그

작품을 읽기 시작했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이외에 더 큰 문제를 겨냥하고 있는 듯 했지만, 당시로서는 그 의미를 알 도리가 없었다. 다만 그 작품은 나에게 나의 저항이 얼마나 왜소했고, 나의 포기가 얼마나 비겁한 것인가만을 알려주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그 이후 내가 읽는 비슷한 소설에 해석적 틀을 마련해준 작품이다. 그리고 교실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들이 써야 할 이야기가 어떠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품이다. 단순히 어릴 적 기억을, 학창시절의 에피소드를 열거해서는 보편적이고 확대된 의미망을 건설할 수 없다는 전언을 가르쳐준 작품으로 나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2.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 보통 사람들

이 작품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인물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한병태'이다. 그는 이 소설의 화자이다. 이미 어른이 된 그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시골로 좌천된 고급 공무원의 아들로, 전학 오는 첫날부터 은근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그가 전학 온 반은 엄석대라는 급장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이었다. 같은 반 학생들은 엄석대를 선생님처럼 받들고 있으며, 그런 체제를 담임 선생님도 용납하고 있다. 병태는 그에게 반기를 들고 그에게 종속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것은 정의감이나 자율 정신 이전에,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보호 의지이다.

그의 싸움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조직적이고 교묘한 엄석대의 복수는 한병태를 외롭고 힘들게 만든다. 자신을 도와주리라 믿었던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혹은 명백한 증인조차 엄석대를 편들었고 그는 자신의 무기력을 실감했다.

소설의 대부분은 한병태가 엄석대와 대결을 벌이면서 패배하고 그래서 그의 보호와 권리를 용인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짜여있다. 확대하자면 자율의지를 가진 인간이 사회의 권력적 질서에 포함되어 가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고 할까. 이문열의 자신의 집필 의도를 문면에 남겨 두었다. 엄석대의 지배는 자유당 정권의 횡포로, 엄석대의 패퇴는 자유당 정권의 몰락으로, 엄석대 이후의 혼란은 4·19 이후의 무질서와 부합되도록 끊임없이 정치적 상황을 거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체제와 문제점이, 교실의 문제와 불합리로 연결 혹은 대입될 수 있다는 작가적 착상에 해당한다.

한병태의 현재 처지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병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 지식인층에 편입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사회는 '엄석대'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자율과 합리와 참여와 같은 덕목보다는 실적과 편법과 요령과 같은 덕목이 보다 강도높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후자의 덕목들은 모순과 비리와 불합리와 강제성 같은 좋지 못한 잘못을 낳게 마련이고, 이를 용납하지 못한 한병태는 집단 밖으로 축출된다. '엄석대의 교실'은 정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엄석대의 사회'는 정화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엄석대의 위용은 교실 밖에서 더욱 찬란해진다. 매를 앞세운 새 담임 선생님의 결단에 밀려난 엄석대는 그 고장을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나 그의 귀향은 휘황하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주변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전해들은 병태는 씩씩해한다. 그에게 엄석대의 교실은 사회에서 분명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병태의 인물형이 인상적인 것은 그의 내부에 잠재된 모순 덕분이다. 시나리오 학자 로버트 맥키는 인물의 입체성은 '모순의 수용'에서 나온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양들의 침묵』의 렉터는 사람을 먹고 살인을 일삼는 인물이지만, 내면의 정당성(가령 의리)을 보유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이 모순을 인지하는 인물들에게, 그는 더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인물로 비쳐진다.

한병태도 비슷하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엄석대를 몰아내기 이전에 이미 엄석대에게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다. 한병태는 엄석대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의 비리를 들추어서라도 몰락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 훗날 다른 사람보다 더 단 굴종의 열매를 맛보고 엄석대 무리의 이인자가 되었지만 그는 엄석대라는 권력자에게 대든 가장 용기있는 아이였다. 그러나 그토록 염원하던 엄석대의 몰락이 찾아왔을 때는 엄석대를 끝까지 보호하는 선택을 한다.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의 추궁을 받으면서 엄석대의 잘못을 비판할 때에도, 그는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한다.

아이들은 야유한다. 한병태가 엄석대의 권력 맛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병태는 엄석대의 권력적 질서에 편입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사회에 만연한 우상들의 질서에 편입하지 않고 세일즈 맨으로 학원 강사로 전전하면서도 자유의지를 잃지 않은 사람으로 남는다(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답게 좋은 직장과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갖고 휘황차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한병태가 엄석대의 질서 속에 남기를 바래서 엄석대를 고자질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혹은 타인의 비판은 근거없는 것이 아닐까. 한병태의 문제적 면모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우리 반을 이끌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되자 나는 갑자기 난감해졌다. 공부에서건 싸움에서건 또 다른 재능에서건 남보다 나은 아이치고 석대가 받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대리시험으로 석대가 그전 담임 선생님의 믿음과 총애를 흠치는 걸 돕거나 석대의 보이지 않는 손발이 되어 그의 불의(不義)한 질서가 가차없이 우리 반을 위압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내가 혼자서 그렇게 힘겹게 석대에게 저항하고 있을 때 가장 나를 괴롭게 한 것도 그들이었고, 갑작스런 반전으로 내가 석대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부러워하거나 시기한 것도 그들이었다.

그렇다고 6학년이면서도 아직 구구(九九)단도 제대로 외지 못하는 돌대거리나 싸움도 하기 전에 눈물부터 보여 앞줄의 꼬맹이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는 허풍선이를 급장으로 새울 수도 없었다. 그 아침까지도 석대가 보장해 주는 특전에 만족해 있던 나 자신을 내세울 수는 더욱 없고—그래서 정직하게 던진 표가 무효를 가장한 기권표였다. 변혁을 선뜻 낙관하지 못하는 내 불행한 허무주의는 어쩌면 그 때부터 싹튼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한병태의 내면에 복잡한 상념이 휘몰아친다. 시세(時勢)에 따라 처신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있고, 어떤 시세에도 온전히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나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의지를 꺾은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나 더 있다.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편리하게 책임을 벗어나는 무책임에 대한 불신이 있다. 네 가지 불신은 허무주의로 귀결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매력적이고 한병태가 매력적인 것은, 이 네 가지 불신이 현대 한국 정치사를 구경한 이들에게 모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불신을 잠재울 단 하나의 확신도, 우리에게는 없다. 적어도, 나에게에는 없다. 현실적 대안이나 넓은 포용 같은 미사여구는 허무주의를 혼드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적어도 나에게에는 그러하다.

정치라는 넓은 권역을 벗어나 현실과 사회를 보자. 편법, 요령, 통솔력, 일사분란함, 강제적 질서, 다수결을 응용한 집단적 횡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원칙은 곧잘 무시되며 ‘우리’라는 편리한 생각의 척도는 비합리적인 결단을 손쉽게 용납한다. 교실에서 혹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살펴 볼 여지가 많다.

우리들에게 일그러진 영웅은, 엄석대가 아니다. 엄석대는 일그러져야 할 영웅이다. 우리에게 진짜 일그러져서는 안 될 인물은, 한병태이다. 한병태의 마음속에 차 오르는 후회와 조급함(이 소설을 보면 먼저 출세한 친구들로 인해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대목이 있다)이 넘쳐흘러, 엄석대의 질서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 질서 내로의 편입을 염원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일그러져 영웅이 되지 못하는 한병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면 그 무력함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할까.

3. 폭력보다 더 무서운 힘

대학에 들어와서 읽은 책 중에서 이남호 편 『오늘의 한국소설』은 유달리 기억에 남는다. 그 안에는 잘 선별된 좋은 단편 소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문학의 맛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돕는다. 그 중에서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은 주목된다. 이 소설은 교실의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

두 작품은 '우상'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차이점이다. 린다 허천의 말대로 패러디는 '차이를 내포한 반복'이기 때문이다. 또 두 작품의 차이를 비교하는 작업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의심해야 할 것의 경계를 보다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고의 폭을 보다 근원적으로 만드는 데에 일조한다.

「우상의 눈물」에서 엄석대의 역할을 맡은 이는 '기표'이다. 기표는 '재수파'라는 유급생들의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이다. 원래대로 하면 3학년이 되어야 하지만 낙제로 인한 유급 때문에 2학년이 된 학생이다.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7명은 일종의 사조직으로 반의 분위기와 질서를 좌우하는 실력자들이다.

엄석대의 질서를 물리치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은 기표의 2학년 담임 선생님에게 넘겨진다. 그는 학기 초 학생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강단 있게 한 해를 밀고 나갈 것을 피력한다. 그는 남은 1년을 항해에 비유하며 그 항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해자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방해자는 기표로 결정된다. 기표가 이끄는 '재수파'는 반의 질서와 분위기를 해치는 사회악으로 낙인찍힌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하지 않는다. 엄석대의 경우와 달리 담임 선생님은 그를 적극적으로 회유한다. 편의를 봐주고 어려움을 돌보고 반장을 시켜서 끊임없이 도움을 베푼다. 낙제를 면할 수 있도록 시험의 부정 행위를 지시하기도 한다. 교사의 지시대로 형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표를 돕도록 계획을 알선한다.

문제는 기표가 형우의 배려를 거절하고 부정 행위 알선을 고발한 다음이다. 아이들은 기표를 돕는다는 명분과 단합된 힘에 취해서 기표에 대한 무서움을 잇는다. 부정 행위자를 묻는 질문에 반 전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섬으로써 기표의 의지에 반하는 무서운 단결력을 선보인다. 기표가 형우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한 다음도 이러한 단결력은 발휘된다. 형우가 폭행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서로 감격하며 형우에게 찬사를 보내게 된 것이다.

두 가지 사건은 반 전체가 기표의 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가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서 굴복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교사와 맞먹은 크기의 학생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한 대목이 있다. 마찬가지로이다. 형우가 비밀을 지킨 대가로, 기표를 도운 대가로, 반 전체가 미담의 주인공이 된 대가로, 기표는 힘세고 난폭하고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던 깡패에서 착하고 수더분하고 수줍은 많은 학생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잔인한 변신이다.

두 소설은 두 사람의 변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은 이유는 다르다. 엄석대의 경우, 담임 선생님은 권력에 짓눌린 학생들에게 자유의지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알려주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그것은 엄석대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기표의 경우,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베풀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 그는 1년의 순조로운 항해를 계획하는 항해사의 직분만을 다하려고 한다. 기표에 대한 애정도 없고, 기표를 순화시킴으로써 얻게 될 교육적 이익도 계산하지 않는다. 오직 기표라는 말썽 많은 학생을 침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기표는 순치되는 자신을 지켜보다 못해 이탈을 결심한다. 그는 가출을 하면서 '무섭다'는 표현을 남긴다. 그의 폭력이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된 적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무서움'은 독특하게 읽힌다. 그의 폭력은 개방된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가 당한 폭력은 숨겨진 그래서 추측하기도 가늠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은 폭력적 존재를 조정하는 더 교묘한 힘에 대해 들려준다. 그 힘은 겉으로는 미약한 것 같지만 보이는 폭력을 제압하는 잔인한 구석이 있다. 무엇보다 그 힘을 행하는 사람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설령 그 폭력을 감지한다고 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폭력적이다. 이 소설을 보면 엄석대를 바로 잡은 교사의 행동까지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다른 많은 사람(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엄석대에 대한 그의 판단과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라는. 나아가서는 그렇게 바로 잡힌 질서이기에, 그 만큼 지속되지 못하고 허물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4. 대립 구도의 시작과 활용

나태한 교사, 권위적인 반장, 반장에게 굴복하는 반원들, 이를 중립적으로 지켜보는 학생(대개 화자), 그리고 이러한 질서에 변혁을 가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교사의 구도는, 두 작품의 공통점이면서 동시에 여러 작품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비록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구조적 틀은 여러 비슷한 작품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와 이순원의 「강릉 가는 옛길」이다.

황석영의 작품은 이문열의 그것과 대단히 흡사하다. 먼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린 날을 들려주듯이 쓰고 있다는 점이 같다. 「아우를 위하여」에서는 형이 학생시절의 이야기를 동생에게 해주고 있다. 다음, 위에서 말한 소설의 구조가 같다. 「아우를 위하여」에는 불성실하고 무사 안일에 빠진 교사가 나온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방기하고 자신의 일을 돌보기에 바쁘다.

더욱 나쁜 것은 자신의 임무를 대신할 반장을 뽑아 넘겨주지 말아야 할 권한까지 넘겨준 점이다. 교사는 가장 힘센 아이에게 반을 이끌 일정한 권한을 분배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간섭하지 않아도 반장의 힘에

의해 반이 일사분란하게 통솔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권위적인 반장이 영래이다. 영래는 미군 부대에서 자란 아이이다. 덕분에 학교는 많은 구호물자를 받게 된다. 영래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 또 많은 나이와 억센 힘과 함께 반을 영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된다. 영래에게 맡겨진 반은 키 크고 힘센 아이들의 세상이 된다.

'매뚜기'라는 별명의 교사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반에 대해 만족한다. 그에게 학교는 골치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족한 공간이다. 영래는 권위적인 힘으로 그의 기대에 부응해 간다. 이러한 질서에 틈을 가져온 인물은 교생이다. 교생으로 온 여자 선생은 스스로를 '병아리 선생'이라고 칭하고 겸손함에 대해 일깨운다. 그녀의 친절한 태도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점을 또한 알려준다. 그로 인해 담임 선생님의 태만과 영래의 폭력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소설의 구도는 매뚜기와 영래와 그의 부하들 대(對), 교생과 화자 그리고 숨죽인 아이들의 대립이 시작된다. 그 대립은 부정적인 측면과 이를 극복하려는 선한 의지의 대결의 양상을 띤다. 그 끝은 선한 의지의 편이 더욱 강해지면서 깊어진다. 전에 누리던 권력을 잃어가는 것을 감지한 영래와 몇몇 부하들은 상대편의 정신적 구심점인 교생을 모욕하려 하고, 이에 발끈한 반원들은 힘을 합쳐 힘있는 소수를 굴복시킨다. 승리에의 쾌감은 모멸과 굴욕감과 패배의식을 말끔히 해소하고 윤리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정의가 짓밟힐 때 취해야 할 덕목에 대해 일깨워준다.

아우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이 승리감일 것이다. 싸워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간단한 신조와 용기일 것이다. 이 소설은 아이들의 교실에서 벌어지는 미시 권력의 암투를 통해 이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정의에의 투쟁을 상기시킨 작품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투쟁의 구도를 나태한 교사와 그 권력을 물려받은 소수의 학생 대 선한 의지를 지닌 교사와 그 의지를 내면화한 다수의 힘 없는 학생 사이의 대립으로 보여준 점이다.

이러한 구도는 이순원의 「강릉 가는 옛길」에서 보다 강도 높게 반복된다. 앞의 세 작품이 나름대로 교실에서의 악과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

루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경험의 한 페이지를 상기시키지만 그 결말과 서술 태도는 비교적 중립 지향적이었다. 어린 시절 교실에서의 투쟁은 사회에서의 악의 창궐과 그것에 대한 사회학적 우려를 멀리 겨냥하고 있다.

반면, 이순원은 교실에서 벌어진 일과 사회에서 벌어질 일을 연관시키는 작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는 다소 격양된 화자를 고용해 어린 시절의 멧힌 한과 잘못된 교사에 대한 개인적인 질책마저 숨기지 않는다. 애써 중립적인 척, 객관적인 척 하지 않고 과거의 기억에 원한을 잊지 않고 과거의 교사를 선생으로 여기지 않는 대단히 감정적인 화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났다는 핑계로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거나 선불리 용서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고집스러움으로 보인다.

「강릉 가는 옛길」은 이관모라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의 부음이 들려 오면서 시작된다. 그런데도 화자는 교사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며 추모나 애도의 정을 보이지 않는다. 소식을 전해주는 동창 역시 화자의 태도를 예상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라지 않는다. 대신 과거의 일을 잊고 장례식에 참석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화자는 그 부탁마저 묵살하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다.

도입부(1장)가 지나면 이관모 선생과 얽힌 지난날의 사건이 회고된다. 화자 수호는 동생 은호와 함께 이관모와 얽힌 원한이 있다. 이 교사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보았을 법한 부도덕한 교사의 전형이다. 각종 명목으로 부모들을 학교로 불러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

이관모는 부임 첫 날부터 부유한 아이들을 살피고, 그들을 반의 요직에 앉힘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의 부모와 가까워진다. 환경 미화와 상담 명목으로 촌지를 유도하고, 그 촌지를 받은 대가를 학생에게 각종 특혜로 돌려줌으로써 부모들로부터 더 많은 촌지를 받아들이는 행태를 벌인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자기 몫을 빼앗기는 학생들이 나온다. 화자인 수호의 동생인 은호가 대표적이다. 은호는 이관모 선생의 반 학생인데 이관모의 총애와 지지를 입은 석주에게 부반장의 자리를 빼앗긴다. 나중에는 우등

상장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수호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수호와 이관모 선생의 만남은 글짓기 반에서이다. 이관모 선생은 석주의 부모에게서 받은 촌지의 대가로 석주를 글짓기 반 대표로 뽑는다. 그 과정에서 수호의 글은 형편없이 상처를 입는다. 월등히 나은 수호의 글을 물리치기 위해서 온갖 트집을 잡았기 때문이다.

수호와 은호가 형제라면, 석주와 경주도 형제이다. 수호와 경주가 한 반이고, 은호와 석주가 한 반이다. 그런데 석주를 편애하는 이관모 선생의 반과는 달리, 경주는 수호의 반 교사에게 편애를 받지 못한다. 수호의 반 여교사가 이관모와 다르기 때문이다. 여교사 김유선은 이관모와는 달리 공정하고 자애로운 교사이다. 그녀는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며, 가난한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참 교사의 면모를 지닌다. 김유선은 이관모의 편파적 심사와 잘못된 반 운영에 상반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태만한 교사 대 선한 의지의 교사라는 대립적 구도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수호·은호 대 경주·석주의 대립도 나타난다. 경주·석주는 집안이 부유하기 때문에, 또 이관모의 총애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소설에서 등장한 절대적 권한의 급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대한 힘을 가진 인물로 성장한다. 반면 수호와 은호는 이러한 힘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는 인물이다. 이것은 침묵하는 다수의 학생들에 해당한다.

두 개의 상이한 대립 구도는 소설의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은호가 억울하게 부반장과 우등상장을 빼앗길 때, 수호가 글짓기 대표 자리를 빼앗기고 가시돋힌 말에 상처를 입을 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을 버리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두 형제에게 몃쓸 체벌을 가하는 이관모를 볼 때, 이관모의 철저한 계략에 말려 한 인생을 포기해야 했던 '오표(수중)'의 모습을 구경할 때, 우리는 대계 선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편들고 동정해야 편과 그렇지 않은 편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다.

조금 더 나아가간다면 우리의 학창 시절에서 억울했던 사건을 대입시켜 그 리얼리티를 보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순원의 소설은 화해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가 간다는 강릉은 더 이상 기억 속의 어떤 추억이 담긴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추악한 인간들이 있었던 공간이며 그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이다. 이기주의와 편파적 사고가 어린 시절의 영혼을 흠집 낸 공간이다.

소설이 객관적인 기록일 때 설득력이 보다 높다고 흔히 말해진다.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상처를 다룰 때 그 소설은 사적인 기록으로 전락하고 읽는 이의 공감을 쉽게 불러오지 못한다고 흔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격언이 소설의 모든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강릉 가는 옛길」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기록일 수 있는데도 상당한 공감과 설득력을 지니니 말이다.

담담하게 쓸 수 있다면……. 그런데 쓴다 해도 웬지 담담하게 써질 것 같지 않다. 어릴 때 일을 생각하면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주기도 하면서 커도 우리 모두 참 순수했었는데, 크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 어릴 때 그런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서 어쩔 수 없는 속물이 돼가는구나, 하는 생각 말이지.

작중 화자의 말이다. 어릴 적 이야기를 소설로 써보라는 동창의 말에, 소설가인 화자는 위와 같이 대답한다. 그러나 막상 쓰여진 소설은 담담하지 않다. 그것은 이 소설이 중립적일 수 없음을 알려 준다(위의 말은 내 포작가의 말이니 엄밀한 의미에서 작가의 말과는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큰 차이를 두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왜, 썼을까. 그것은 순수했던 어린 날의 감정 빛깔을 바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한다. 그 양보 속에는 어린 날, 자신을 괴롭혔던 이관모에 대한 용서도 포함될 수 있다. 옛날 담임 선생님만큼 나이를 먹으면, 세상을 편리하고 유리하게 사는 방법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른다. 비록 교사가 아닐지라도 그 방법을 쓰면 많은 수호와 은호에게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 (내포)작가는 그

수호와 은호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 어른들에게 과거를 미화하지도 쉽게 용서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또 그 잠재적 어른이 될 수 있는 자신을 다잡아 매기 위함이 아닐까. 사제시간이라는 외형적 명목으로 지난 일이라는 유동적 시간개념으로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이순원은 어린 시절을 미화할 생각도 없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변질의 고차원적인 문제를 겨냥할 생각도 없어 보이지만 솔직했고 과감했으므로 이 소설은 음미할만한 문제의식을 내장하게 된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균형 감각을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소설이 읽을 만한 것은 솔직한 자기 반성이 그리고 쉽게 굴절되지 않은 문제의식이 내장되었기 때문이다.

5. 교사와 학생의 틈

오탁번의 「인형의 집」과 공지영의 「광기의 역사」와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지금까지 일련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권위적인 급장이 제거된 구도를 보인다. 두 작품은 학생들과 선생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소설이다.

「인형의 집」은 낙후된 시골로 부임한 여교사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서울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시골로 발령을 받는다. 신출내기 교사답게 야무진 포부로 시작한 그녀의 학교 생활은 아이들로 인해 궁지에 몰린다. 그녀의 물건이 하나씩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료들의 반응을 의식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대담하기까지 한 도둑은 그녀의 의도를 번번이 무산시키며 그녀의 물건을 훔쳐낸다.

반전은 그녀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서 일어난다. 서울에서 좋은 직장 과 흔처를 구한 여교사는 상경하기로 결심한다. 이 사실을 안 교사들과 학생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인다. 주목되는 것은 그

들의 표정이다. 그들은 이미 여교사의 선택을 알고 있었다는 듯 행동한다. 철새처럼 떠나가는 서울 출신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나온다. 그것은 아이들이 훔쳐낸 물건들로 장식한 허수아비이다. 여교사의 잃어버린 물건들도 허수아비를 장식하는 물품들로 쓰이고 있었다.

어떤 학생이 어떤 경로로 물건을 훔쳐내어 어떤 의미를 담아 허수아비를 꾸렸는지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는다. 떠나가는 선생님을 기억하기 위함인가, 곧 떠날 교사들을 비판하기 위함인가. 오락번은 그 대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여교사의 개인주의적 교육관과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변증법적으로 대비하면 어느 정도 짐작만 할 수 있도록 복선만 설치한다. 누구도 악하지 않지만 누구도 선하지 않은 교육 현실이 드러나도록 말이다. 이것은 개성적인 교육관과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소설적 전언이다.

공지영의 「광기의 역사」는 조금 부담스러운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정말로 그럴까 싶을 정도로 악질적인 교사들과 불합리한 학교 정책이 잔뜩 나열되어 있다. 교사들의 마음은 간사하고 학교는 무자비한 폭력을 용인하고 아이들은 수감자처럼 생활하고 있다. 한 마디로 학교는 교도소나 지옥의 다른 이름이다.

이 소설은 잘 읽힌다. 그것은 지나칠 정도로 일관되게 학교 교육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화자의 비난은 독자들에게 솔직한 자기 체험으로 느껴지기에 무리 없이 동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 하다. 우리들의 학창 시절이 한없이 행복하지만 앓았기에 화자의 “학교라면 내 청춘을 열 번 다시 돌려준다 해도 싫었다”는 증오 섞인 발언에 어느 정도 동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화자는 학교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마저 살피고 있지는 않다. 치욕스러운 기억을 열거함으로써 학교로부터 얻었을지도 모르는 혜택과 추억과 고마움마저 함부로 떨치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독설이 객관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를 작가적 신념으로 바꾸어 판단한다면 재고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소설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전문가적 혹은 철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은 아니다. 소설가는 삶의 한 모퉁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는 차후의 문제이다. 하지만 좋은 소설을 판별하는 기준에서 그 차후의 문제는 중요한 요건을 차지한다. 마땅히 화자는 학교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 정당인지, 혹은 유년 시절에 대한 자신의 증오가 과연 합당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고만으로 균형잡힌 세상의 모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교실의 이야기와 정치적 현실을 이어놓은 대목도 재고되어야 한다. 공지영은 학교의 참담한 상황이 사회적 모순에서 연원했다거나 혹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을 지은 박정희와 6학년 담임 선생의 모습을 연관짓고, 1980년 '서울의 봄'과 한 여학교의 항명 사건을 등가에 놓는 구성이 그러하다. 이러한 구성법은 대단히 작위적이다. 깊이 있는 식견에 의존했다기보다는 가벼운 말장난처럼 처리되어 있다. 이것은 교실의 사회학적 상상력이 현실의 토대를 두지 못하고 어설픔게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실의 문제마저 회색시키는 약점을 낳았다.

최시한의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학생의 일기로 꾸러진다. 일기의 주인은 허생전을 학생들과 함께 읽는 '왜냐 선생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대답을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왜냐'로 추궁하는 국어 선생님이다. 그와 화자와 화자의 반 학생들은, 「허생전」을 읽는다. 그러면서 허생이 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인지 묻고 대답한다.

허생은 양반들의 허세허식과 잘못된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가난한 백성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돈을 벌었다. 그러나 그는 선비를 자처했기 때문에 사회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선비의 도리와 체면을 위해 한 발 떨어진 자리에 위치했고 그로 인해 장대한 실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것이 그 문답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이러한 허생에 대한 수업은, 교사의 처지와 상응한다. 교사는 당시 교직원 조합을 만들려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와 당국과 학부모와 심지어는 학생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왜냐 선생'의 인격과 실력과 소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임을 버리려고 하지 않지만, 대세와 주변 여건은 '왜냐 선생'을 궁지로 몰고 있다.

지식인의 실천 결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소설에 반영된다. 하나는 허생을 가르치면서, 그의 실천의지 결여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교육 개혁 의지를 피력하는 '왜냐 선생'의 처신에 반영된다. 그는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왜냐 선생'을 보면서 윤수가 보여준 저항 의지이다. 윤수는 말더듬이로, 그리 뛰어나지 못한 학생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학생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왜냐 선생'의 뜻을 잘 이해한 학생이다. 그는 일신을 보존하기 위해 몸을 사리는 교사나 학생들을 대신해 운동장에 몸을 던진다.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준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허생의 한계를 극복한 학생이며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의 초상이 될 만하다.

최시한은 '왜냐 선생'과 윤수를 보면서 투사의 이미지를 고쳐나가는 화자의 일기장을 공개한다. 화자는 똑똑하지만, 윤수와 같은 신념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은 왜 허생이 섬에서 문자 읽는 사람을 추방했는지 알게 해준다. 지적 층만이 실천력의 결여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화자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던 투사의 상이 무너지면서 허생이 삼입하려 한 진실을 접근한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허생의 고뇌를 배우는 시간이다. 조선조를 살았던 지식인의 고민을 배우고, 그 고민을 이해하고도 일신의 안녕을 위해 가르침을 거부할 수 없었던 한 양심적 교사의 고민을 배우고, 그 교사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겨야 했던 학생의 진심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러한 배움은 교실의 풍경에서 지식인의 책무를, 배우는 자의 도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실의 사회학을 피력하는 소설을 읽는 독자들의 각성을 추구한다.

6. 새로운 소설들에 나타난 학교의 모습

김연수의 「가는 바람이 불어왔겠지」와 김종광의 「분필교향악」은 새로운 세대들이 쓴 교실 일기이다. 신예 작가들의 고민을 담은 최신판 학창 보고서인 셈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두 가지 문제를 보인다. 하나는 지난 소설들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짚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가는 바람이 불어왔겠지」는 문제의식의 답습을 보여준 경우이고, 「분필교향악」은 산만한 문제의식이 정제되지 않고 노출된 경우이다.

이것은 두 작품이 이전 작품들에 대한 면밀한 문학적 검토를 결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차피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닌데, 연구사 검토처럼 이전의 작품들을 읽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당대의 문제의식을 당대의 경험적 현실에서만 찾으려하는 오류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아니 두 작품의 경우 이미 그 오류를 밟고 있다.

김연수의 경우 권위적인 반장의 폐해를 고발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소설적 전략을 따르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경호라는 '담임만큼이나 힘이 막강한 반장'이 나온다. 담임 선생님은 폭력적이고 그 폭력의 권한을 경호에게 나누어준다. 그리고 이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화자가 나오고, 그 화자는 문제의 소지를 골라 고발을 한다. 이것은 이전 소설의 구도와 거의 흡사하다.

다만 이전의 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경호에게 대드는 학생이 화자나 새로운 선생님이 아니라 문제아로 낙인찍힌 고아원 출신 급우라는 점이다. 태식은 담임 선생님과 반장의 압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반항함으로써 혹시나 가능했을 지도 모르는 그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것은 화자의 안타까움을 불러온다. 그리고 화자의 고발은 태식을 돕기 위한 그의 선택으로 암시된다.

이러한 변화는 다소 차이를 불러온다. 무엇보다 태식이라는 문제적 인물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장치를 매설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거

시적 관점에서 교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대결과, 학창 시절의 추악한 면모를 강조한 꼴이 된다. 태식이라는 인물 창조도 다분히 관념적이다. 따라서 반항에 대한 절실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화자의 태도도 상투적이다. 이것은 엄석대와 기표의 차이만큼 의미 있는 변주로 여겨지지 않는다.

「분필교향악」은 특정 학생이나 문제적 교사 혹은 중심적 이슈를 내세우지 못한 작품이다. 이 소설에는 엄석대 같은 권위적 반장도 없고, 이관모 교사 같은 속물도 없고, 전교조 결성 같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없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조금씩 뒤섞여 있기도 하다.

권위적 반장의 횡포는 없지만, 이기적 행동을 해서 남을 괴롭히는 학생은 있다. 그 학생은 자신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반원 전체가 단체 체벌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자신의 안위가 먼저이다. 한 학생의 잘못을 꼬투리로 단체 체벌을 가하는 교사도 문제이다. 교사는 사소한 잘못을 확대하여 반원 전체에게 과도한 벌을 내림으로써 체벌의 객관성을 스스로 잃는다. 더구나 개인적 분을 제어하지 못하고 수업 준비와 태도 불량을 체벌의 꼬투리로 삼는 교사의 상은, 앞 작품에서 비교육적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지탄을 받는 교사의 상과는 어느 정도 구별되어야겠지만, 자질을 갖춘 교사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으로 앞의 많은 소설들에 등장했던 부정적 교사상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 내릴 수 있다. 교사의 훈화 가운데에는 교육 현장의 상황과 관련되는 발언이 숨어 있다.

“나는 너희들의 담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담임과 의견의 일치보다 차이가 더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담임에게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 너희들의 담임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의 담임 정도면 적어도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만큼은 자신이 참교육이라고 상정한 그 격을 만들어가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았다. 너희 놈들은 그 하찮은 분필 토막 하나를 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 너희들의 담임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럴 리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체육교사의 훈화 내용은 지나치게 논리적 비약을 감행한다. 따라서 그 내용을 따지는 것은 별 의의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사안은 교사들도 가르침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인 논리이다. 그러나 상식적인 논리는 적어도 '참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주장하는 측과, 그 주장과 다른 교육 방침을 추구하는 측으로 교육 현장이 나뉘어 있다는 실제적 관찰에 이르면 조금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표면적으로 체육교사는 '참교육'을 주장하는 측에 적극 가담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전교조의 태동에서 교육 현장이 크게 이분된 것과 어찌면 비슷한 양상이다. 이것은 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이다. 이 소설은 체육교사의 암시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문제적 사안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을 두루 살펴 볼 때, 이 소설은 교육 현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강하게 각인되지 않는다. 그것은 작가의 관점이 지나치게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교사의 체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된 답변을 주지 못한다. 불편하고 당혹한 교실 내부의 풍경을 보는 이유가, 학생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교사의 부족한 자질을 비판하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적 대안이 처한 위기를 비판하는 것에 있는지 도대체 명확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우리의 교육적 대안을 짚어보려 했다고 믿어주기에는 그 어느 것도 절실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학생과 교사의 교육 현실의 문제적 사안들이 잠재하고 있는, 근원적 이유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어느 재수없는 날의 교실 해프닝 한 편을 엿본 느낌으로 이 소설의 독서 이유를 마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교실의 상상력이 사회의 문제적 면모를 지적하는 좋은 소설들의 전통이 제대로 이어졌다고 판단 내릴 수 없다.

7. 소설 속 교실을 나와 사회로

발표 연대나 시간적 순서에 구애받기보다는 나름대로의 독서 순서와 상호 공통점을 중시하여 몇 편의 소설을 읽어보았다. 이 소설들은 일련의 영향 관계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닮은 경우도 있다. 그것은 독서를 통한 영향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한편 닮은꼴은 교육 현장의 유사점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교육에 대한 우리 나라 사람의 관심은 매우 깊다. 차라리 극성에 가까운 정도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흔히 말해진다. 그럼에도 교육적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교실은 힘있는 학생에 의해 지배되고 교사상은 아직은 부정적인 측면이 다분한 것 같다. 소설들은 이러한 문제점에서 잉태된다. 유감스러운 점은 과거의 현실이 그대로 지속되는 현재의 교실이다.

교실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억측은 아닐 것이다. 교육이 사회의 구성원을 기르는 합법적인 통과 의례라고 한다면, 지금의 통과 의례는 상당히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으며, 그 통과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소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교육 현실을 다룬 작품은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다가가려고 노력한 경우이다. 그래서 일정한 성과도 얻었다. 권위적인 인간형을 발견하기도 하고, 권위적인 인간을 조정하는 더 큰 모사꾼을 만나기도 한다. 힘없는 다수의 봉기를 보기도 하고, 그 봉기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지식인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신성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조차 서로를 모함하고 더 큰 권력에 기대 일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인물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접근 방법이 한계에 도달한 인상이다. 이전 소설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되풀이하거나, 안이한 구성과 인물 창조로 현실에 도전하는 태도는 곤란하다(특히 90년대 후반 작가들). 소설은 현실을 보는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시선이 결들어질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남의 것과 널

리 유통되는 것과 안일하게 처리된 것은 그 빛을 발하게 할 수 없다.

이제 교실의 상상력은 새로운 도전을 겪어야 할 때이다. 과거의 소설들이 지적하지 못했던 작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업에서부터 그 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잘못된 교육이 가져올 피해 못지않게, 잘된 교육이 불러올 성과도 언급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소설이 그 방향타나 조언자가 될 수 있다면, 소설이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해묵은 질문에 좋은 대답 하나를 예증할 수 있을 것이다.